

## 해외 여행자 대상 AIDS예방 캠페인

협회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지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6일간 김포국제공항 1.2층사에서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AIDS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협회 임직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20여명이 참가하여 제2층사 출국장에서 간단한 발대식을 갖은후 에이즈예방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출국하는 해외여행객들에게 에이즈예방 안내서 3만부를 배포하며 현장상담도 실시했다.

이날 해외여행 출국자들에게 여행중의 섹스-콘돔만이 유일한 안전대책, 해외에서의 수술은 가급적 피하기, 주사기나 바늘은 남이 썼던 것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 해외에서의 주사나 수술은 가급적 피하라, 특히 음주로 이성을 잃었을 때 실수하기 쉬우므로 술을 마실 경우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리플렛 3만부를 배포했다.

##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

협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 강당에서 양호교사, 청소년 지도자, 보건요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이즈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협회의 상담 자원봉사자로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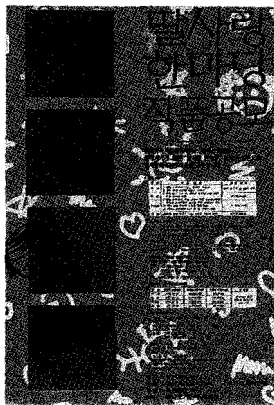
촉하여 각처에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상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 “딸사랑 한마당” 잔치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는 남아 선호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딸사랑 한마당” 잔치의 일환으로 딸사랑에 대한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 내용은 수기, 사진 비디오 작품을 딸을 가진 가정의 엄마, 아빠의 숨씨로 표현해 주고 사진, 비디오 작품의 경우는 기성작가의 작품도 가능하다.

작품마감은 97년 10월 1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가족계획협회 홍보출판과(T: 634-3410, 634-8211~4)로 하면 된다.



## 해외여행자 대상 팜플렛 배포

보건복지부는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예방 및 국내전파방지를 위해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팜플렛 50만부를 제작, 배포했다.

주요 홍보내용은 해외여행시 현지의인 등의 호객행위에 유혹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 간호계 인사 위한 축하연

대한간호협회는 금년도 상반기 중 각종 포상 및 승진 등으로 간호계를 빛낸 간호계 인사들을 위한 축하연을 지난 8월 25일 KNA 연수원에서 개최했다.

강원용 고문(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은 한국 종교인평화회의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0일까지 가평의 「바람과 물」 연구소에서 「현대과학과 종교」라는 주제로 대화모임을 갖았다.

김집 고문(한국청소년연맹총재)은 지난 8월 20일 동아일보사를 방문해 97나라사랑청소년국도열차대행진 행사를 지원한 뜻뵈 동아일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길여 고문(길병원 이사장)은 지난 7월 25일 베트남 하이퐁시의 비엠티엠병원과 현지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앞으로 의료지원과

심장병환자등 난치환자의 치료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모임 부회장(대한가족계획협회장)은 저속트층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의 치료 및 불임관련 상담, 연구를 위한 「아가사랑 후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나눔 운동」으로 명명되고 있는 「아가사랑후원사업」은 전국의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과 내년에는 모금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사업은 오는 99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연숙 이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가 제8대 정무제2장관으로 취임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각종 여성, 사회단체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 8월 6일 정무 제2장관으로 취임한 이연숙 장관은 현장에서 부닥치던 문제들을 6개월 남짓한 임기동안 정부 정책

을 통해 풀어내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연숙 이사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졸업 후 고교 영어교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고 주한 미국 공보원에서 25년간 재직한 바 있으며 국제가족계획연맹 극동아시아,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홍보위원, 국제 폰타클럽 환경위원 등으로 활약 했다.

최영희 이사(대한간호협회장)는 이연숙 이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가 정무2장관으로 입각함에 따라 8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여협은 간협을 비롯한 38개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한 연합체로 여성 권익을 대변하고 여성 정책발전을 위해 힘써온 여성계의 대표기구이다. 최영희 이사는 그동안 여협 국제관계위원장, 부경 여성대회 NGO 한국위원회 운영위원,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운영위원 등을 지내며 활발한 여성활동을 펼쳐왔으며, 올해 2월부터 여협 제1

부 회장으로 봉사해왔다.

지우영 운영위원은 9월 1일 연강홀에서 '자선영, 지우영 자매 귀국 발표회를 갖았다. 지우영 운영위원은 지난 제9회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에 감염자와 함께 출연하여 에이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표현한 "다섯번째 레퀴엠"이라는 독일표 현주의 무용연극을 했었다.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7~8월)

김정실 10,000	이성민 20,000	임미영 10,000	홍대영 10,000
김옥심 10,000	이준영 10,000	원영호 20,000	연경숙 10,000
박복화 20,000	이정수 20,000	장영심 10,000	
박종숙 10,000	황준섭 10,000	지선구 10,000	